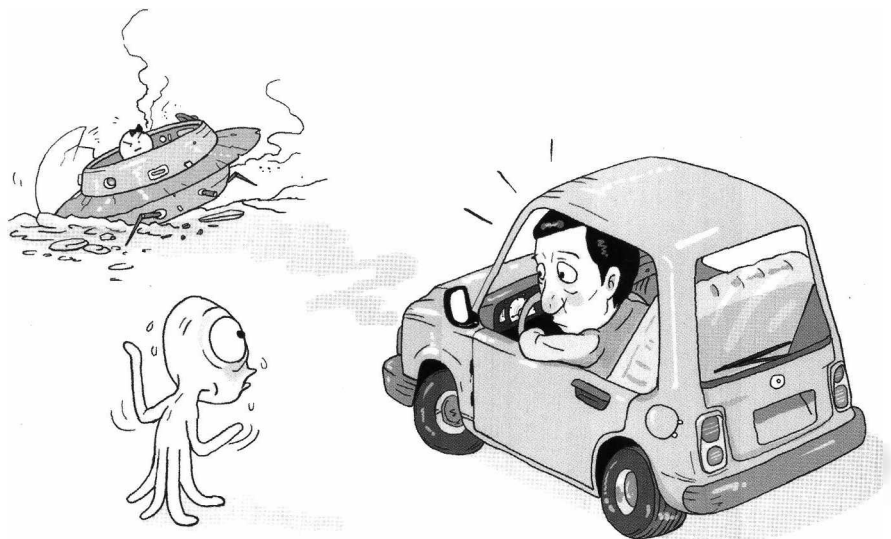


전기 자동차 표준화

# 우리 자동차는 충전 중



배터리가 방전 되어서...

혹 '코리아표준'이면 충전 케이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 우주선도 '코리아표준'인데..

세계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2010년부터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행되어, 이미 선진국들은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자동차'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기 자동차의 운행을 활성화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서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에 있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표준 경쟁'인데요, 전기 자동차 시장에도 표준을 잡아야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 전기 자동차 표준코디네이터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 표준

화가 시작된 것이지요.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전기 자동차 표준화에는 전기 자동차 차량 시스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등의 표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시스템 표준화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전자파 영향, 에너지 소비율 등의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표준화에서는 전기 자동차 저장 장치 성능 및 신뢰성 표준화와 에너지 저장 팩 성능 및 신뢰성 표준화가 이루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시스템 표준화에서는 충전 접속 기구 표준화, 충전소 설치 및 운용 관련 표준화, 충전 요금 표준화가 이루어 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체계적인 전기 자동차 표준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136]